

## 한의원의 경영 현황과 정책 인식도에 대한 조사 연구

박요한 · 강병갑 · 신현규\*

한국한의학연구원

---

### Abstract

---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management of traditional Korean medical clinics and perception of the policies

Yo-Han Bak<sup>1)</sup> · Byoung-Kab Kang<sup>2)</sup> · Hyeun-Kyoo Shin<sup>1)\*</sup>

1) *Herbal Medicine Research Division and 2) Medical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Republic of Korea*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improve the management of traditional Korean medical(TKM) clinics and the policies for supporting them, by conducting a survey of the practitioners of TKM.

#### Methods

Stratified sampling was conducted based on regional location, and 700 samples were selected in a random manner from the membership list. The questionnaire was delivered and returned by mail. The survey was conducted between 20 July and 31 August 2010. A total of 177 questionnaires (recovery rate: 25.28%) were recovered and analyzed for the study.

#### Results

1. The the survey indicate that the overall size of TKM clinics has fallen compared with previous survey, while the average number of beds per clinic has remained unchanged at 7.9. The sale of medicine as a proportion of total monthly sales has increased. 2. There has been no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clinical staff as there are three nursing assistants. Although the average daily number of patients to clinics has remained at around 33.90 compared with ten years ago, the number of patients requiring seeking acupuncture treatment has increased while the number of those treated with medication has decreased. 3. Clinicians in TKM have indicated their preference for a binary system that separates TKM from western medicine (57.4%). The respondents do not favor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81.5%), marks of origin for medicinal herbs (68.9%), disclosure of the prescriptions (67.2%), and the overseas expansion of Korean medical services (70.4%). However, they indicated that they are very much in favor of being granted the authority to employ and give orders to medical technicians (96.0%). 4. The respondents selected Korea as the country that maintains a proper academic system for traditional medicine (45.5%), and are not in favor of opening Korea's traditional medicine

---

\* 교신저자 : 신현규 / 소속 :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461-24번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방제연구그룹

Tel : 042-868-9464 / E-mail : hkshin@kiom.re.kr

투고일 : 2014년 11월 10일 / 수정일 : 2014년 12월 16일 / 게재확정일 : 2014년 12월 18일

market under an Free Trade Agreement(FTA) with China (72.7%).

### Conclusion

The overall status of the management of TKM clinics has declined compared with the preceding decade. There has been only a slight change in clinicians' opinion of the related policies and regulatory issues.

### Key Words

traditional Korean medical clinics, traditional Korean medical doctors, Policy, Management

## I. 서론

최근 한의계는 환자 수의 급감, 한약 매출 감소, 한의사의 공급 과잉 등 여러 복잡한 이유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환자의 감소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sup>1)</sup>. 그리고 한의계 주변에 여러 정책이 다양한 이익단체와의 갈등 선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계 내에서도 명확하고 일관된 주장을 할 수 없는 정책들도 있다. 이러한 정책 갈등은 모든 이익집단에서 상존하는 문제이며, 외부 환경에 따라 갈등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2010년도에 한의원 수는 12,061개, 전체 한의사 16,175명중에 13,232명(81.8%)이 한의원에 종사하고 있다<sup>2)</sup>. 한의원은 한국 한방의료서비스의 중심축으로서, 그 동안 경영에 대한 선행 연구가 있어 왔다. 한의원 전문화와 경영 성과에 대한 연구<sup>3)</sup>, 지난 기간 동안 경영 상황의 변화를 보여주는 연구<sup>4,5)</sup>, 지난 20년간 한의원 경영 수지를 분석한 연구<sup>1)</sup>, 또 최근 3년의 경영 현황<sup>6)</sup>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 즉 한의원 경영 현황과 이에 종사하는 한의사의 정책 인식이 전체 한의계를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난 여러 해 동안 한의계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의원 경영 현황과 한의사들의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 추이를 주기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이전 연구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향후 미래의 한의원 경영과 정책 제언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 내용 및 방법

### 1. 연구 대상

한의사협회 회원 명부를 기준으로, 한의원에 근무하는 한의사를 지역별로 층화하여, 700명을 임의 추출방식으로 선정하였다(Table 1). 설문지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반송봉투나 FAX로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발송 및 회수기간은 2010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였다. 이를 통해 회수된 설문지 177부(회수율: 25.28%)를 분석하였다.

### 2. 연구 방법

설문 대상자인 한의사의 일반적인 현황 5개 문항(성별, 출생년도, 근무지역, 수련과정, 임상경력)과 한의원 경영과 관련하여 인프라 영역인 공간, 치료 도구, 인력, 환자 수의 항목으로, 간접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6개 문항(공간 면적, 침상수, 매월 한약 구입액, 보조인력, 내원환자 수 등)과 각 종 한의계 언론지에 수록된 정책 이슈 현안을 수집하여, 9개 문항(양방과의 의료체계, 한의약분업,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구성하였다.

### 3. 통계처리

설문지 문항에 대해 결측값을 제외하고 연속형 변수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고, 범주형 자료는

Table 1. Distribution of TKM Clinics by Regional Blocks in South Korea

Region	No. of Total TKM Clinics	No. of forwarding TKM Clinics (%)	No. of Responsor TKM Clinics (%)
Seoul	3,349	211(6.30)	51(24.17)
Busan	972	57(5.86)	11(19.29)
Daegu	744	46(6.18)	11(23.91)
Incheon	509	28(5.50)	7(25.00)
Gwangju	303	19(6.27)	3(15.78)
Daejeon	438	27(6.16)	12(44.44)
Ulsan	267	15(5.61)	4(26.66)
Gangwan-do	309	17(5.50)	6(35.29)
Gyeonggi-do	2,343	116(4.95)	29(25.00)
Chungcheongbuk-do	317	22(6.94)	7(31.81)
Chungcheongnam-do	429	22(5.12)	6(27.27)
Jeollabuk-do	428	24(5.60)	10(41.66)
Jeollanam-do	306	17(5.55)	4(23.52)
Gyeongsangbuk-do	559	39(6.97)	5(12.8)
Gyeongsangnam-do	661	34(5.14)	11(32.35)
Jeju-do	127	6(4.72)	0
Total	12,061	700(5.80)	177(25.28%)

n(%)로 나타내었다. 모든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AS 9.1.3 version (SAS Institute, Cary, NC)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일반 현황

설문에 응한 한의사들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 162명, 여자 15명이었고, 20대가 1명, 30대가 30명, 40대가 89명, 50대가 48명, 60대 이상이 9명으로 조사되었다. 근무지역으로 서울특별시 31명, 6개 광역시 60명, 시 지역 66명, 군 지역 이하 20명이었다. 병원 수련의를 이수하지 않은 한의사가 151명, 이수한 한의사는 26명이었다. 설문자의 임상경험은 9년 이하 28명, 10년에서 19년 이하 76명, 20년에서 29년 이하 62명, 30년 이상이 11명이었다(Table 2).

#### 2. 경영 현황

##### 1) 기반 환경

한의원 경영을 위한 기반인 공간 면적과 침상수, 매월 한약 구입액을 조사하였다. 한의원 면적은 20(3.3㎡) 이하 4개소, 21-30(3.3㎡) 37개소, 31-40(3.3㎡) 42개소, 41-50(3.3㎡) 38개소, 51-60(3.3㎡) 19개소, 61(3.3㎡) 이상 32개소였고, 평균 면적은 49.01±23.25(3.3㎡)이었다. 침상수는 1-5개 31개소, 6-10개 107개소, 11-15개 19개소, 16-20개 2개소, 20개 이상 1개소였고, 평균 침상수는 7.99±3.32개로 조사되었다. 매월 한약 구입액이 50만 원 이하 6개소, 51-150만 원 이하 53개소, 150-250만 원 이하 48개소, 250-350만 원 이하 28개소, 350-450만 원 이하 14개소, 451만 원 이상 24개소로 나타났고, 월 평균 한약 구입액은 150-250만원 사이였다(Table 3).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Item	Distinction	No. of Responsor(%)
Gender	Male	162(91.53)
	Female	15(8.47)
Age	20-29	1(0.56)
	30-39	30(16.95)
	40-49	89(50.28)
	50-59	48(27.12)
	≥ 60	9(5.08)
Service area	Seoul	31(17.51)
	metropolitan city	60(33.90)
	City	66(37.29)
	Country Unit	20(11.30)
Doctor-in- training	Uncompleted	151(85.31)
	Complete	26(14.69)
Period open of clinic	≤ 9years	28(15.82)
	10-19years	76(42.94)
	20-29years	62(35.03)
	≥ 30	11(6.21)

Table 3. Condition of the Space, Sickbed and Purchasing Price of Medicinal Herbs in TKM Clinic

Item	Distinction	No. of Responsor(%)
No. of Distinction(Unit: 3.3㎡)	≤ 20	4(2.33)
	21-30	37(21.51)
	31-40	42(24.42)
	41-50	38(22.09)
	51-60	19(11.05)
	≥ 61	32(18.60)
No. of Sickbed	1-5	31(19.38)
	6-10	107(66.88)
	11-15	19(11.88)
	16-20	2(1.25)
	≥ 20	1(0.63)
Purchasing price of Medicinal Herbs per Month(Unit: Won)	≤ 500,000	6(3.47)
	≤ 1,500,000	53(30.64)
	≤ 2,500,000	48(27.75)
	≤ 3,500,000	28(16.18)
	≤ 4,500,000	14(8.09)
	≥ 4,510,000	24(13.87)

## 2) 보조 인력

한의사를 제외하고 진료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진료와 관련 없는 기타 인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간호사는 없는 한의원이

154개소로 제일 많았고, 주로 간호조무사와 기타 인력으로 구성되어있었다. 간호조무사도 없는 한의원 21개소, 1명 75개소, 2명 56개소, 3명 15개소, 4명 이상 9개소였다. 한의원 평균 보조인력수는

3.01±1.51이었고, 이중 간호사 0.08±0.36명, 간호 조무사 1.54±1.04명, 기타 인력 1.37±1.31명이었다 (Table 4).

3) 환자 내원수

한의원 1일 내원하여 진료받는 환자수가 10명 이하 13개소, 11-20명 35개소, 21-30명 52개소, 31-40

Table 4. Number of Assistance in TKM Clinic

Item	Distinction	No. of Responsor(%)
Nurse	0	154(93.33)
	1	9(5.45)
	2	1(0.61)
	3	1(0.61)
	≥ 4	0(0)
Assistant Nurse	0	21(11.93)
	1	75(42.61)
	2	56(31.82)
	3	15(8.52)
	≥ 4	9(5.11)
Others	0	46(26.74)
	1	62(36.05)
	2	39(22.67)
	3	14(8.14)
	≥ 4	11(6.40)

Table 5. Number of Daily Outpatient

Item	Distinction	No. of Responsor(%)
No. of patients	≤ 10	13(7.39)
	11-20	35(19.89)
	21-30	52(29.55)
	31-40	37(21.02)
	41-50	17(9.66)
	≥ 51	22(12.50)
No. of patients for Acupuncture & Moxibution	≤ 10	24(13.71)
	11-20	36(20.57)
	21-30	51(29.14)
	31-40	33(18.86)
	41-50	16(9.14)
	≥ 51	15(8.57)
No. of patients for herbal medicine(Unit: Jae)	0	4(2.29)
	1	22(12.57)
	2	54(30.86)
	3	32(18.29)
	4	12(6.86)
	5	17(9.71)
	6-10	25(14.29)
	≥ 11	9(5.14)

명 37개소, 41-50명 17개소, 51명 이상 22개소였다. 이중 침구, 부항치료 환자수는 10명 이하 24개소, 11-20명 36개소, 21-30명 51개소, 31-40명 33개소, 41-50명 16개소, 51명 이상 15개소였다. 따라서 내원 환자의 88.8%가 침구, 부항치료 환자로 나타났다. 침약 복용 환자는 0제가 4개소, 1제 22개소, 2제 54개소, 3제 32개소, 4제 12개소, 5제 17개소, 6제 이상 34개소였다. 따라서 한의원은 1일 평균  $33.90 \pm 18.72$ 명의 환자가 내원하였고, 이중 침구 부항 환자  $30.15 \pm 18.19$ 명, 침약 환자  $4.16 \pm 4.07$ 명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 3. 정책 인식도

한의신문 및 논문,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제기되는 한의약 관련 정책과제를 9개 문항으로 작성하여 한의사들에게 설문조사하였다(Table 6).

현재 한의계의 가장 큰 이슈인 의학과 한의학과 의 의료체계 관계에 대한 문항으로 설문응답자의 100명이 현재의 이원화 체계 유지를 원했고, 74명이 일원화 체계로 가야한다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또 약학계 및 한약계에서 주장하는 한의약분업에 대해 32명이 찬성, 141명이 반대하였다. 한의사의 의료 기사지휘권 확보에 대하여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Table 6. Traditional Medical Doctor' Perceptions on Pending TKM Policy Issue.

Item	Distinction	No. of Responsor(%)
Relation between Western and traditional medicine	dualization	100(57.47)
	unification	74(42.53)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herbal medical practice	Approbation	32(18.50)
	opposition	141(81.50)
Right to command of medical technician	Approbation	169(96.02)
	opposition	7(3.98)
Origin mark of Medicinal Herbs	opposition	54(31.03)
	Approbation	120(68.97)
Public offering of Prescription	Approbation	57(32.76)
	Opposition	117(67.24)
Convenience of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Strongly inconvenience	25(14.20)
	Inconvenience	58(32.95)
	Neutral	65(36.93)
	convenience	27(15.34)
	Strongly convenience	1(0.57)
International advance into foreign countries	Approbation	52(29.55)
	Opposition	124(70.45)
Best traditional medicine model in public health	South Koera	76(45.51)
	China	63(37.72)
	Japan	6(3.59)
	Taiwan	3(1.80)
	United States America	3(1.80)
	Others	16(9.58)
Opening the Koera-China FTA in traditional medicine	Strongly disagree	56(31.82)
	Disagree	72(40.91)
	Neutral	38(21.59)
	Agree	9(5.11)
	Strongly agree	1(0.57)

169명, 필요없다가 7명으로 나타났다.

재배 농민 및 소비자단체에서 요구하는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응답자의 120명이 표시 의견을 제시하였고,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자가 54명이었다. 한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처방전 공개 여부에 대한 문의에 공개 57명, 비공개가 117명이었다. 새로 개정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대하여 현재 의료 현장에서 분류 코드 사용이 아주 불편하다는 응답이 25명, 불편 65명, 보통 65명, 만족 27명, 아주 만족 1명으로 응답하였다.

한의사의 해외 진출, 특히 미국 한의사 자격증인 NCCAOM(National Certification Commission for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시험을 통해 진출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52명, 진출할 의향이 없는 응답자가 124명이었다.

세계적으로 주류의 서양의학과 전통의학이 공존하는 의료체계에서, 어느 국가의 의료체계가 옳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한국 76명, 중국 63명, 일본 6명, 대만 3명, 미국 3명, 기타 16명으로 응답하였다.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에서 한의약 분야 개방에 대해 아주 반대 56명, 반대 72명, 보통 38명, 찬성 9명, 아주 찬성 1명으로 나타났다.

#### IV. 고 찰

현재 한국 한의계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계층은 한의원에서 진료하는 한의사들이다. 따라서 한의원의 경영 현황과 한의사의 정책 인식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그 변화 추이를 관찰하는 것도 한국 한의계의 향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한의원 경영의 기본인 진료 면적, 보조 인력

수, 매월 한약 구입액 등을 조사하였고, 또 이와 관련된 이전 연구들을 조사하여 한의원의 장기적인 경영 현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한의원 평균 면적에 대해 이번 조사와 이전 결과와 비교해보면<sup>4,5,7,8)</sup> 1997년 32.8(3.3㎡), 1999년 37.2(3.3㎡), 2006년 47.2(3.3㎡), 2008년 52.1(3.3㎡), 2010년 49.0(3.3㎡)으로 나타났다. 2008년 조사에서 41~50(3.3㎡)이 24.4%로 가장 많았지만, 2010년에는 31~40(3.3㎡)이 24.4%로 가장 많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한의원 평균 면적이 2008년을 기점으로 줄어들어, 이는 신규 개설이나 이전 시, 혹은 원외 탕전을 이유로 공간이 줄어들었다고 추측된다.

한의원 보유 침상수 조사에서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sup>4,5,8)</sup>, 1999년 6.6개, 2006년 8.8개, 2008년 7.9개, 2010년 7.9개로 조사되었고, 2008년 6~10개인 한의원이 62.7%로 가장 많았고, 이번 2010년에도 6~10개인 한의원이 66.8%로 나타나, 침상 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매월 한약구입액은 51~150만원 인 비율이 30.6%로 가장 많았고, 이는 2008년 조사 결과 49.8% 보다 낮아졌지만, 전체적으로 이 구입 비용 이상의 한약 구입액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로 나타났다. 즉 400만 원 이상 구입 비율이 2008년 10.2%에서<sup>5)</sup> 2010년 22.7%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Figure 1). 이는 침약 환자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한약을 통한 한의원 경영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고, 다만 한의원 경영이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동안 한약재 약가의 상승이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한방의료 행위를 보조하는 전체 인원에 대한 이전 조사에서<sup>4,5,8,9,10)</sup>, 보조 평균 인력 수가 1999년 2.1명, 2001년 2.5명, 2003년 2.56명, 2006년 3.2명, 2008년 3.0명, 2010년 3.0명으로 나타나 2006년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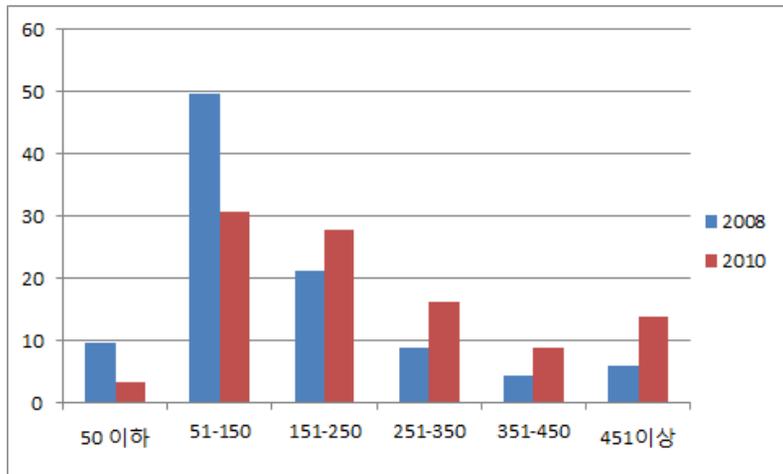


Figure 1. Purchasing Price of Medicinal Herbs per Month in 2008 VS. 2010

명을 기점으로 계속 3명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한의원의 보조 인력에 대해 직종별로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진료와 관련 없는 기타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이를 각 직종별 각 연도별 보조 인력을 살펴보면<sup>4,5,8,9)</sup>, 1999년에는 한의원 1개소 당 간호사 0.3명, 2001년 0.08명, 2006년 0.24명, 2008년 0.1명, 2010년 0.1명으로 조사되었고, 간호조무사는 1999년 1.09명, 2001년 1.07명, 2006년 1.58명, 2008년 1.5명, 2010년 1.5명으로 유지되고 있어 인력의 변화는 없었다.

이전 한의원 1일 평균 환자수 조사와 비교하면<sup>4,5,6,8)</sup> 1999년 32.7명, 2006년 36.34명, 2008년 33.3명, 2010년 33.9명의 환자가 내원하였고, 이중 침구부항시술 환자가 1999년 25.0명, 2006년 32.06명, 2010년 30.15명이었고, 침약환자는 1999년 7.0명, 2006년 4.28명, 2010년 4.16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전체 환자 수는 유지되고 있으나, 이중 침구환자만 늘어났고, 한약 복용 환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공공의료 이원화체계에서, 한의학과 의학의 상호 관계는 늘 문제와 갈등을 야기하여왔다. 이

번 조사에서도 한의사들은 이전 57.7%, 53.3% 조사 결과<sup>4,5)</sup>와 마찬가지로,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비율이 57.47%로 높았다. 하지만 한의계의 다른 조사에 의하면<sup>11,12)</sup> 일원화 체계 선호도가 58.3%, 62.7% 이원화 체계 유지에 41.7%, 37.3%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일원화 비율이 높은 이유로 일원화에 관심도가 높은 조사 대상자가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여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진 결과로 보고 있다. 한편 의사협회 조사에서도 한의학과 의 관계에 대하여 일원화 선호도 47.1%, 현재의 이원화 유지 43.9% 찬성하고 있어, 의학회 역시 이 문제에 대해 통일된 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sup>13)</sup>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한의학과 의학의 상호 관계는 한의사와 의사 각 협회 내부 및 상호 간에 매우 큰 갈등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한의약분업 실시에 대해서는 다른 조사 결과에서 80.7%<sup>4)</sup>, 87.7%<sup>14)</sup>와 마찬가지로 81.5%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한의사의 한의약분업의 대상자인 한약사 회원들은 한약사 제도 폐지와 약사제도 일원화에 95%가 찬성을 하고 있어<sup>15)</sup>, 이 또한 한의사, 한약사, 약사간의 갈등 요소가 잠복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료의 이원화 체계, 한의약분업 정책은 1993년 한약분쟁과 마찬가지로 한국 의약계에 큰 사건으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한의사의 의료기사지휘권 확보에 대한 한의사들은 이전 조사<sup>4)</sup>와 마찬가지로 96%이상의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한방의료기관내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 또한 여러 복잡한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타 조사에 의하면<sup>14)</sup> 75.0%, 이번 조사에서 68.97%가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sup>16)</sup>에서, 국회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sup>17)</sup>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지키고 국내 한약재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하여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으나, 한의사협회는 한약재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환자가 한약재별로 선별해 의약품 조제를 의뢰하는 결과를 낳아 오히려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여 국회 법률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sup>18)</sup>.

환자가 복용하는 한약 처방구성을 알려주는 처방전 공개에 대해 67.24%가 공개를 원하지 않았고, 이후 타 조사에서도<sup>14)</sup> 91.2%가 반대하였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한약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성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sup>19)</sup> 한약처방 공개를 요구하는 소비자층은 한약을 좋아하고 주기적으로 구입하는 연령이 높은 층의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41.7%), 직접 안전한 한약재 구입(34.5%)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반대로 한약 처방을 공개하여도 자발적 조제 의향이 없는 소비자층은 전문지식 부족(39.8%), 부작용 우려(13.6%)를 이유로 공개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다.

한약재 원산지 표시와 처방전 공개는 정책 혜택의 주 대상이 한의사가 아니라 국민인 소비자이므

로, 한의계는 정책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한방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병 통계를 국가 보건통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사용에 대해 응답자의 46%가 사용하는데 불편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보수 교육이 더 추가되어야겠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의 세계화 정책을 목표로 회원들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sup>20)</sup>, 타 조사 결과<sup>4)</sup> 72.3%와 마찬가지로 70.4%의 한의사들이 해외 진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과 전통의학이 공존하는 각국 의료체계에서, 어느 나라의 공존 체계가 바람직한 체계인가에 대해 한국의 한의사들은 이전 조사<sup>21)</sup>와 동일하게, 한국의 한의학 체계를 우선순위로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중국을 선택하였다. 즉 한국과 중국에서의 서양의학과 전통의학의 상호 의료체계에 대해 80% 이상이 올바르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중국과의 FTA에서 상호 전통의학인 중의학과 한의학 시장 개방에 대하여는 반대가 70%하였는데, 타 조사에서도 67%<sup>5)</sup>, 69%<sup>13)</sup>가 반대하였다.

본 조사를 통하여 한의원 경영과 한의사의 정책 인식도를 조사하였지만, 각 설문 문항에 대한 자세하고 깊은 연구보다는 간단한 응답으로 경영 현황과 정책 인식의 변화만 확인하였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의학원의 최근 경영 상태는 면적, 인력, 한약재 구입 등의 결과에서 계속 현상 유지 상태에 있으며,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낮은 설문 참여율과 한의원 경영에 대해 간접적인 지표만을 추정함으로써, 정확한 경영 현황과 흐름을 인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전수조사나 통계학적인 표준 샘플 조사 방법이 아니어서, 한의사의 정책 인식 역시, 조사 시점과

참여자의 의견일 수밖에 없는 제한이 있다.

## V. 결 론

2010년 한의원 근무 한의사 대상으로 한의원 각종 경영 현황과 정책 인식도를 설문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한의원 면적이 2008년을 기점으로 줄어들었으며, 침구 시술을 위한 침상 수는 7.9개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의원의 매월 한약 구입액은 2008년에 비해 높아진 추세로 조사되었다.
2. 진료를 위한 보조 인력은 3명, 이중 간호조무사 1.5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인력의 변동은 없었다.
3. 한의원 1일 평균 33.9명의 환자가 내원하였고, 이중 침구 환자 30.1명, 침약환자 4.1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전체 환자 수는 유지되고 있으나, 침구환자만 늘어났고, 한약 복용 환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 한의사들은 현재의 양·한방 의료이원화 체계를 원하였고, 한의약분업 실시, 한약재 원산지 표시, 처방전 공개, 해외진출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의료기사지휘권 확보에는 적극적인 찬성을 하였다. 현재 새로 개정된 표준질병사인분류 사용에 대하여 불편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바람직한 국가 전통 의학체계로는 한국을 선택하였고, 중국과의 FTA를 통한 전통의학시장 개방에 대하여는 반대하였다.

## 감사의 글

이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처방의 과학적 근거 기반 구축사업(K14030)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다.

## 參 考 文 獻

1. 김대훈, 임병목. 20년간(1997년~2007년) 한의원 경영수지의 경향 연구.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2; 16(2): 41-52.
2. 이선동, 최찬호. 최근 한방의료기관의 환자 감소 요인 고찰. 한국의사학회지. 2011; 24(1): 9-15.
3. 이정석, 이선동, 김진현. 한의원의 전문화가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한예방한의학회지. 1998; 2(1): 145-63.
4. 황대선, 이경구, 신현규. 한의원 환경 및 경영 현황 변화에 대한 연구. 한의원 시설 및 인력, 환자, 매출액을 중심으로 -. 대한한의학회지. 2008; 29(3): 100-112.
5. 박요한, 황대선, 신현규. 한의원 환경 및 한의사의 진료 현황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11; 32(4): 25-36.
6. 백영화, 김윤영, 장은수. 최근 3년간(2008-2010년)의 한의원 경영 현황 및 한의사의 인식도 조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3; 27(5): 667-671.
7. 양동현, 이운태, 명희봉, 박실비아. 한약(침약) 가격 적정화 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1997, 263.
8. 이용세, 이규식, 이선동, 조경숙.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원. 1999, 91-100.
9. 임병목, 김진현. 국내 한방의료 및 대체요법 관련 산업의 현황과 국민 경제에 대한 기여도. 서울,

- 보건복지부, 2001, 38-48.
10. 이윤태, 박종애. 한방의료기관 경영 실태 조사 및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3, 197
  11. [http://www.akomnews.com/subpage/search\\_detail.php?code=A001&uid=67345&page](http://www.akomnews.com/subpage/search_detail.php?code=A001&uid=67345&page)
  12. 윤강재, 김동수. 의·한의 공생발전을 위한 통합적 접근방법 모색.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134-137
  13. [http://www.akomnews.com/subpage/search\\_detail.php?code=A001&uid=82215&page](http://www.akomnews.com/subpage/search_detail.php?code=A001&uid=82215&page)
  14. 조재국, 김남순, 도세록, 이연희, 윤강재, 박진한, 장동현, 천재영, 김화영, 이난희, 유형석, 서성우. 한방 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482-483.
  15. [http://www.akomnews.com/subpage/search\\_detail.php?code=A001&uid=48739&page](http://www.akomnews.com/subpage/search_detail.php?code=A001&uid=48739&page)
  16. [http://www.akomnews.com/subpage/search\\_detail.php?code=A001&uid=53968&page](http://www.akomnews.com/subpage/search_detail.php?code=A001&uid=53968&page)
  17. [http://www.akomnews.com/subpage/search\\_detail.php?code=A001&uid=61390&page](http://www.akomnews.com/subpage/search_detail.php?code=A001&uid=61390&page)
  18. [http://www.akomnews.com/subpage/search\\_detail.php?code=A001&uid=91201&page](http://www.akomnews.com/subpage/search_detail.php?code=A001&uid=91201&page)
  19. [http://www.akomnews.com/subpage/search\\_detail.php?code=A001&uid=89075&page](http://www.akomnews.com/subpage/search_detail.php?code=A001&uid=89075&page)
  20. [http://www.akomnews.com/subpage/search\\_detail.php?code=A001&uid=70114&page](http://www.akomnews.com/subpage/search_detail.php?code=A001&uid=70114&page)
  21. Dae Sun Huang, Hyeun-Kyoo Shin. Perception of Traditional Medical Doctors on Policy Issues in Korea: Cooperation with Western Medicine, and the Demand and Supply of Practitioners. *J Korean Med.* 2012; 33(4): 17-25.

